



Bethell, Ernest Thomas (베델)

- 출생 : 1872. 영국
- 별세 : 1909. 한국
- 한국활동기간 : 1904 ~ 1909
- 묘비번호 : A-02(m)

선교사 이야기

언론인이었던 베델은 <대한매일신보>와 <코리아데일리뉴스>를 통해서 한국을 식민지로 삼으려는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원래 베델은 영국 <데일리크로니클>지 특파원으로 러일전쟁을 취재하기 위해서 1904년 한국에 들어왔다. 당시 베델의 조국인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정책(부동항을 얻는 것이 주목적)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 동맹을 체결하고 있었다. 따라서 영국인 베델이 창간한 <대한매일신보>와 <코리아데일리뉴스>도 일본을 편드는 기사를 싣는 것이 유리했겠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다.

베델은 양기택, 신채호, 박은식 등 민족지사들을 신문의 주간으로 영입하여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고 한민족의 애국심을 고양하는 글들을 실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장지연은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논설을 실어 전국을 울음바다로 만들었다. 이에 베델의 <대한매일신보>는 장지연의 행동을 찬양하고 호외까지 발행해서 일본을 규탄하였다.

또한 대구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퍼져간 '국채보상운동'의 지원금총합소로 대한매일신보사는 그 명성이 자자하였다. 더욱이 1908년 4월 17일자 <대한매일신보>에 전명운과 장인환이 친일 미국인 스티븐슨을 암살한 사건을 보도한 기사를 싣기도 하였다.

베델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자 일제는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간계를 짜내었고, 결국 베델은 재판에 회부되어 영국 영사관 고등법원에서 6개월 근신형과 3주간의 금고형에 처해졌다. 이후에는 상하이로 끌려가서 3주간 금고형에 살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심신이 약해진 그는 1909년 5월 1일, 37세의 나이로 안타깝게 별세하였다.

1910년 양화진 베델의 묘에 장지연이 지은 추모비가 세워졌지만, 일제는 칼과 망치로 그 내용을 지워버렸다. 해방 후 19년이 지난 1964년이 되어서야 언론인들이 성금을 모아서 장지연이 지은 원래의 비문을 새긴 작은 새 비를 세워 양화진에 보존되어 있다.

베델, E.T. - 대한매일신보 창간

베델. E.T.(1872-1909, 영국, 언론인)

베델은 구한 말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해 억눌린 한국인들의 대변인 역할을 한 분이다. 그는 민족 지사들을 신문사의 주간으로 영입해 만행을 고발하고 한민족의 애국심을 고양하는 글들을 실었다. 1909년 5월 1일, 37세로 세상을 떠나 양화진에 안장됐다.



Hulbert, Homer Bezaleel(허버트)

- 출생 : 1863. 미국
- 별세 : 1949. 한국
- 한국활동기간 : 1886 ~ 1907
- 국적 : 미국
- 소속교단 : 감리교
- 묘비번호 : B-07(m)

선교사 이야기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외국인”

한국의 교육 선구자 허버트

허버트는 한국의 은인,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외국인으로 칭송받는 인물이다. 1863년 1월 26일 미국 버몬트에서 목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허버트는 1884년 다트머스(Dartmouth) 대학을 졸업하고, 유니온 신학교 재학 중이던 23세 때 육영공원(育英公院) 영어교사로 1886년 7월 4일 내한하였다.

1886년 9월 23일 개원한 육영공원의 운영과 교육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育英公院 設學節目’을 제정한 허버트는, 학생들이 세계 지리에 관심을 보이자 1889년에는 <士民必知>를 한글판으로 발행했는데 이 책은 많은 학교에서 필수 교재로 사용되기도 했다.

5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한 후 학교가 문을 닫자 귀국했던 허버트는 1893년 9월 감리교 선교사로 다시 한국에 오게 되었다. 다시 방한한 그는 배재학당 안의 삼문출판사를 중심으로 주로 문서선교에 관여하며 다양한 주제로 한국에 관한 글들을 발표하는 한 편, 1903년에 창설된 한국 YMCA의 초대회장을 맡기도 하였다.

고종의 외교고문으로 독립을 위해 힘쓰다

일본이 을사늑약으로 한국의 외교권과 재정권을 강제로 빼앗기 바로 전, 고종은 시어도어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에게 외교적인 도움을 호소하기 위해서 허버트를 밀사로 파견하였다. 이때 미국과 일본은 이른바 ‘가쓰라태프트밀약’을 맺고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이권 보장과 한국에 대한 일본의 야망을 서로 묵인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있던 고종은 1882년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 제1조, 즉 쌍방 중 어느 한 나라가 제3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할 경우 다른 한 나라는 이에 간섭해서 우호적으로 사태를 해결해 줘야 한다는 거중조정 내용을 문구 그대로 믿고 밀사를 파견했다. 결국 허버트는 친일인사들로 구성된 미국 정부에 고종의 밀서를 접수시키지도 못하였고, 한국과의 신의를 저버린 자신의 조국을 원망하면서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헤이그에서 한국 독립의 정당성 호소

헐버트는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한국정부에 알리고 그것을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알리는 외교적인 통로로 활용하기를 권고하였다. 이에 고종은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등 세 사람의 밀사를 파견하였다. 헐버트 자신도 헤이그로 가서 유럽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호소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압력으로 이 일도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해외 독립운동을 돕다

1909년 8월에 헐버트는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다. 강제로 퇴위된 고종으로부터 상하이 독일계 은행에 예치해 둔 25만 달러 상당의 비자금을 찾아 안전한 은행으로 옮겨 달라는 밀명을 받았다. 하지만 해외독립운동을 돕기 위해서 비밀리에 마련해 둔 이 자금도 일본 통감부의 간계로 결국 다 빼앗기고 말았다.

마지막까지 이어진 한국 사랑

미국으로 돌아간 헐버트는 순회강연과 신문기고를 통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고 루즈벨트의 대한정책을 비판하며 한국을 잊지 않고 돕는 일을 했다. 광복 후 이승만 대통령의 초청으로 86세의 노구를 이끌고 내한하였지만 노쇠한 육신으로 오랜 여독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1949년 8월 5일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웨스터민스터 사원보다 한국에 묻히고 싶다."는 헐버트의 유언에 따라, 그의 유해는 한 살 때 죽은 그의 아들이 묻혀있는 양화진에 안장되었다.

.# 헐버트, H.B.(1863-1949, 미국, 북감리회)

헐버트 선교사는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한국인'으로 칭송받는 분이다. 그는 또 선에 관한 글을 써서 외국에 알렸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다. 해방 후 이승만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에 왔지만 여독으로 세상을 더났다. '웨스트민스트성당보다 한국에 묻히고 싶다'는 뜻대로 양화진에 안장됐다.



난지 일년만에 죽은 그 아들이 묻혀있다. 이 묘비는 1949년 8월 11일 영결식때 제막한 것인데,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가 묘비명을 쓸 수 있도록 비석의 가운데 부분을 비워두었다.

그러나 당시는 건국 초기여서 국내의 여러가지 사정상 추진위원회가 글씨를 미쳐 받지 못했고 그 이후 50년 동안 그대로 비어 있다가 험버트 박사의 서거 50주년을 맞아 1999년 당시의 대통령이던 김대중의 휘호를 받아 묘비명을 새겼다.

<가운데 세로 글씨 '험버트 박사의 묘'라는 한글 휘호가 김대중의 필적이다.묘비명은 순 한글로만 세로 줄로 이렇게 쓰여 있다. "천팔백육십삼년 일월이십육일 미국에서 탄생 천구백사십구년팔월오일 서울에서 별세 선각자요 한국의 친구인 험버트 박사의 묘

"나는 윈스트민스터 성당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단기 사천이백팔십이년팔월십일일 험버트 박사 장의 위원회 세움

호머 베절릴 험버트 (Hulbert ,Homer B.1863.10.26 ~1949.8.5. 허활보)

1863년 미국 버몬트에서 목사의 둘째아들로 태어나 1884년 디트마우스 대학을 졸업하고 유니온 신학교 재학중이던 1886년 7월 4일 육영공원(育英公院) 영어교사로 내한하였다. 1886년 9월 23일 개원한 육영공원의 운영과 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育英公院 設學節目'을 제정한 험버트는 학생들이 세계 지리에 관심을 보이자 1889년에는 최초의 한글 교과서인 '사민필지'를 한글판으로 발행했는데 이 책은 많은 학교에서 필수교재로 사용되기도 했다.

5년동안 교사생활을 한 후 학교가 문을 닫자 귀국했다가 1893년 감리교 선교사로 다시 내한한다. 그는 한국 땅에서 머물며 선교사로,교육자로, 언론인이자 저술가로,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다. 고종 황제의 신임을 받아 최 측근 보필 역할 및 자문 역할을 하여 미국등 서방 국가들과의 외교 및 대화 창구 역할을 해왔다.

대한제국의 분리 독립 운동을 지지하고 지원하였으며,1907년 헤이그 비밀 밀사에 적극 지원하여 밀사 활동을 하였고 후에 미국으로 돌아간 험버트는 순회 강연과 신문 기고를 통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독립을 위해 루즈벨트의 대한 정책을 비판하며 한국을 잊지 않고 돕는데 앞장섰다. 고종황제의 신임을 받아 최측근 보필 역할 및 자문 역할을 하여 미국등 서방 국가들과의 외교 및 대화 창구 역할을 해왔다.

대한제국의 분리 독립 운동을 지지하고 지원하였으며,1907년 헤이그 비밀밀사에 적극 지원하여 밀사 활동을 하였고 3.1 운동을 지지했다. 정부에서는 1950년 외국인 최초로 험버트 박사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험버트는 배재학당의 삼문출판사를 중심으로 문서 선교에 관여하여 한국을 알리고 1903년에 창설된 한국 YMCA의 초대학장을 맡고 또한 한국 토속문화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던 아리랑을 최초로 악보로 만들어 1896년 처음 세계에 소개하여 제1회 서울 아리랑 상의 수상자가 되었다.

한글과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글 발전에 공헌하여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그를 기리기 위해 서울 종로에 조성된 주시경 마당에 세워진 그의 동상은 이 같은 그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다. 광복후 이승만 박사의 초청으로 내한했지만 온지 일주일만에 86세의 노쇠한 육신으로 쓰러져 1949년 8월5일 세상을 떠났다.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에 묻히고 싶다는 그의 유언에 따라 한 살때 죽은 아들이 묻혀있는 양화진에 안장되었다. 겨우 일년을 살다가 죽었는데 험버트는 1888년 9월, 한나(May B. Hanna)와 결혼하였으며, 그 부인은 1948년 11월 별세했는데 2남 3녀의 자녀를 낳았다.

성장한 다른 아들 험버트 2세 윌리엄 체스터는 서울에서 출생하여 1986년 별세하였다. 그리고 3세(손자) 리처드는 2002년 미국에서 죽었으며, 4세(증손자) 김벌리(Kimball A.)는 현재 콜럼비아 대학에서 국제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2004년 8월 5일 험버트박사 55주기 추모식 때에 양화진을 방문하여 유족 인사를 하였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고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위해 헌신했던 박토리아 풍의 신사 험버트(Homer B.Hulbert)박사 이곳에 잠들다"



외국인 최초로 독립운동가로 선정되기도 한 헐버트 박사는 광복 후인 1949년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으로 광복절 행사에 헐버트 박사의 논문 「한국의 소리 음악」은 아리랑을 세계에 알리는 첫 걸음이 되었고 100여 년 전 처음으로 아리랑을 오선지에 채보하여 세계에 알렸다.

외국인임에도 1906년 우리나라 역사서 '대한제국 멸망사'(The Passing of Korea)라는 명저를 남겼다.

영국 런던에서 출판한 이 책은 그가 20여 년간 한국에서 머물며 보고 느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전통, 풍속, 산업, 사회제도 등을 집대성한 책이다.

이 책에서도 그는 우리나라 서민의 대표 노래로 아리랑을 언급했다.





Moore, Samuel Forman(무어)

- 출생 : 1860. 미국
- 별세 : 1906. 한국
- 한국활동기간 : 1892 ~ 1906
- 국적 : 미국
- 소속교단 : 장로교
- 묘비번호 : A-24(m)

선교사 이야기

“백정과 가난하고 억눌린 백성을 위한 전도”

백정 전도의 개척자

무어는 '백정 전도의 개척자'이자 '백정 해방운동의 조력자'로 칭해졌다. 무어는 미국 매코믹 신학교 재학 중 언더우드로부터 한국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고, 졸업 후 32세 때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왔다. 그는 꾸준한 노방전도로 사람들을 모아서 곤당골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도 열었다. 학생들 중에 관자골에 사는 백정 박씨의 아들 '봉출이 (Pong Choolie)'가 있었다.

어느 날 봉출이에게서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무어는 박씨를 여러 차례 위문하였다. 그런데 하루는 무어가 외국인 한 사람을 박씨에게 데리고 왔다. 바로 고종의 주치의 에비슨이었다. 에비슨은 여러 차례 왕진하면서 정성스럽게 치료해주었고 마침내 박씨는 완쾌되었다. 박씨는 왕의 주치의가 짐승 같은 백정을 치료해 준 것에 감격해서 곤당골 교회에 출석하였고, 세례를 받고 '성춘'이라는 이름도 얻게 되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나니

당시 교회에 나오던 양반 교인들은 백정과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없다면서 예배당 앞쪽에 양반의 자리를 따로 마련해 달라고 무어에게 졸랐다. 무어가 '복음 안에서 신분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거절하자 결국 이들은 따로 교회를 세우고 갈라졌다. 한편 신분차별로 설움 당하던 많은 백정들은 복음 안에 차별이 없다는 무어와 박성춘의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

1898년 가을에 곤당골 교회는 분리되었던 홍문동 교회와 다시 합하여 백정과 양반이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고, 1905년에는 예배당을 승동으로 옮겨 이름도 승동교회가 되었다.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위한 사역, 그리고 열매

장티푸스에 걸렸다 살아난 백정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은 에비슨이 세운 제중원의학교(세브란스의대의 전신)의 1회 졸업생으로 모교에서 10년 동안 교수로 재직하였다. 이것은 당시 백정 신분으로서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한편, 박성춘은 승동교회(곤당골교회)에서 1911년 장로로 안수를 받았는데, 재미있는 것은 3년 후 왕손이던 이재형도 같은 승동교회에서 장로로 안수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차별 없는 복음을 직접 경험한 상징적인 일이면서 동시에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헌신한

무어의 사역이 거두어들이는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다.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하던 무어는 1906년 장티푸스에 걸려 46세의 나이로 세브란스병원에서 숨을 거두었다.

무어, S.F. - 백정 선교활동

무어는 '백정전도의 개척자'이자 '백정 해방운동의 조력자'로 불리는 인물이다.
장티푸스에 걸려 죽어가던 백정 박성춘을 에비슨 선교사와 함께 치료해준 일이 계기가 되어
무어 선교사는 박성춘과 함께 차별 당하던 많은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1906년 장티푸스에 걸려 46세의 나이로 제중원에서 숨을 거두었다.

무어(S. F. Moore, 1860.3-1906.11 모삼열) 선교사 A-24



1892년 시카고 맥코믹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인 로즈(E. Rose)와 함께 고향인 미국 일리노이를 떠나
1892년 9월 19일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였다. 언더우드의 도움으로 좋은 어학 교사를 만나 한글을 배웠
으며, 한글로 전도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학에 능통하였다.

무어는 권서 서상륜과 함께 백정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곤당골(을지로 입구, 현 롯데호텔)에 자리를 잡고 백
정들을 상대로 전도를 하여 1893년 6월 16명이 모인 가운데 곤당골 교회를 설립하고 학교도 세웠다.

학생 중에 봉주리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백정인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
어는 고종의 주치의요 제중원 원장 에비슨의 진료를 받게 하여 박씨를 치료해 주었고 완쾌된 박씨는 큰
감명을 받아 곤당골 교회에 출석하고 세례를 받아 이름조차 없던 백정 박씨는 박성춘이라는 이름도 얻게
되었다.

여기에 전도에 자신을 얻었던 무어는 양반들에게도 전도하여 상민과 천민 구별 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서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갔다. 무어의 의식화 교육을 받았던 박성춘은, 무어와 협력하여 백정 선교에
힘을 쏟았다. 이 일로 곤당골 교회의 분위기가 신분 철폐 쪽으로 흘러가자 양반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양반
들의 반발 또한 거세어 졌다.

양반들은 따로 나가 예배를 드리는 사태까지 벌어졌으나 " 예수님 안에서는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없으며,
다 주님 안에서는 형제고 자매입니다." 하며 저들의 행위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무어 선교사는 천
민들이 모여 사는 마포 강변으로 오르내리면서, 어부 생활을 하는 그 지역에도 전도를 하였다.

예수 안에서 신분이 철폐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천민들은 계속해서 모여들었고, 무어 선교사는 마포에서
배를 타고 광나루까지 다니면서 전도한 결과 16개의 교회를 세웠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마포구 있는 동
막교회와 서대문구에 있는 대현교회이다

양반들이 따로 나가 예배를 드리던 홍문샷골 예배당이 뜻하지 않은 화재로 소실되자 양반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다 곤당골교회로 모여들었고 이렇게 하여 양반 천민이 예수 안에서 하나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되자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교인들이 많아지자 무어 선교사는 1905년에 인사동에 새 예배처소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양반과 천민이 함께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면서 승동교회(勝洞敎會)라 이름을 지었다. 현재의 승동교회이다.

그러나 무어는 1906년 12월에 장질부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의 묘비명은 "조선인을 사랑하였고 또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였나이다" 조선에서는 무어가 최초의 민중목회자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무어의 사상적 영향을 많이 받았던 백정들은 민중운동에 앞장선 무어의 정신을 이었다. 승동교회에 장로선거를 할 때 백정 박성춘이 당선되자 양반들이 더 이상 천민들과 같이 다닐 수 없다 하면서 안국동에 안동교회를 설립했다는 에피소드도 있다.



Heron, John W.(헤론)

- 출생 : 1850. 영국
- 별세 : 1890. 한국
- 한국활동기간 : 1885 ~ 1890
- 국적 : 미국
- 소속교단 : 장로교
- 묘비번호 : C-21

선교사 이야기

“양화진에 최초로 묻힌 선교사”

보장 된 길을 내려놓고 조선으로 찾아오다

양화진에 최초로 안장된 인물은 헤론이다. 헤론은 테네시 대학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미 20대에 모교의 교수로 초빙 받은 수재였다. 하지만 그는 수재로서 보장된 길을 선택하지 않고, 헤티와 결혼한 후 북장로회 선교사로 1885년 6월 21일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다.

입국한 후에는 알렌, 언더우드와 함께 제중원에서 의사로서 일했습니다. 20대 후반의 열정에 넘친 세 신참 선교사들은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서로 간에 많은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당시 조선의 위생 환경은 매우 불결하였다. 천연두나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이 연례 행사처럼 창궐해서 마을을 쓸대밭으로 만들고 수많은 목숨을 앗아 가기도 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질려서 일부 선교사는 바로 자신의 나라로 귀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조선인들을 돌보던 선교사들도 있었고, 이들 가운데 몇 사람은 그만 자신이 전염병에 희생되기도 하였다.

헤론 역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많은 환자들을 돌보다가 그만 이질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이때, 헤론의 병상을 3주 동안 불철주야 지킨 사람은 언더우드였습니다. 선교 초기 갈등을 빚기도 했던 두 사람의 우정은 이때 극적으로 회복되었다.

헤론의 유가족으로 아내와 어린 두 딸이 남았는데, 헤론은 아내에게 조선에 계속 남아서 선교의 일을 계속하기 원한다고 부탁 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인 하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도 부탁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론은 ‘나의 사역이 참 보잘 것 없었지만, 그것이 모두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다’고 고백하였다.

헤론, J.W. -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의 최초 안장자, 제중원 운영
헤론은 양화진에 최초로 안장된 선교사이다.

양화진이 선교사 묘역이 된 것은 1885년 북장로교 의료선교사인 헤론이(J. W. Heron)이 1890년 7월 28일 병으로 순직하여 이곳에 묻히면서 비롯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이 일대에는 선교사와 부인 그리고 자녀들은 물론이고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까지 숨진 후 묻히는 공동묘지가 되었다.

*양화진 묘역 최초의 피장자 John W.Heron 해론(1856~1890)과 가족묘 c21~22

아내: Gale.Harriet G. Heron(1856~1908)

외손자: Gale.James M(1914~19140



해론은 미국 테네시 주 메리빌대와 뉴욕 의대를 수석 졸업하여 의대 교수 초빙을 받았지만 거절하고 미 북장로회 선교사로 1885년에 한국에 온다. 그가 조선에 선교사로 오기로 결심한 것은 한국 기독교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이수정이 쓴 편지가 실린 선교 잡지를 읽고 크게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란다.

"미국 사람들이여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조선 백성들은 문명을 모르고 어둠 속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해론은 병들어 죽어가는 가난한 나라에 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며 미 북장로교를 찾아 선교사 파송을 부탁한다. 26세의 젊은 나이에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먼저 일본으로 가서 이수정에게 조선 말을 배우고 풍속을 익힌 다음 1885년에 6월 21일 다른 몇 선교사와 함께 제물포에 도착했다.

해론은 이미 먼저 조선에 온 의료 선교사 알렌(Horace Allen)이 갑신 정변으로 치명상을 입은 민영익을 수술하여 살려냄으로 고종의 신임을 얻어 궁정 시의로 임명 받게 되어 알렌은 궁정 사람들만 치료하는 서양 병원 광혜원 설립을 허락받았으나 알렌은 일반 백성들도 치료할 수 있도록 탄원하여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꾼다(1885/4/26) 비로소 일반 백성도 서양 의학의 혜택을 보게 되고 이로써 의료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된다.

바로 이 시기에 해론은 제중원 제 2 대 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당시 조선은 불결하고 위생 관념도 없어 전염병이 철 따라 돌았는데 해론은 밤 낮으로 환자 치료에 전력을 다하며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성경 번역으로 과로가 쌓여 결국 이질에 걸려 33세의 젊은 나이로 소천하게 된다.

해론은 그의 병상을 지키는 아내와 언드우드에게 "나의 사역은 참으로 보잘 것 없었지만 모두가 주님을 위한 것이었다"고 고백하였다. 그의 묘비명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쓰여 있다. 해론의 아내 해티는 33세의 미망인으로 평소 해론과 가까웠던 선교사로 30세의 총각이었던 게일 선교사와 1892년 재혼하였고 둘 사이에는 자녀가 없고 해론과의 사이에 딸만 둘이 있었다.

해티는 1907년 두 딸과 한국을 떠났다가 스위스에서 다시 돌아와서 1908년 결핵으로 서울에서 소천하여 전 남편 해론이 묻혀있는 양화진에 묻혔다.



Hall, William James(윌리엄 제임스 홀)

- 출생 : 1860. 캐나다
- 별세 : 1894. 한국
- 한국활동기간 : 1891 ~ 1894
- 국적 : 캐나다
- 소속교단 : 감리교
- 묘비번호 : C-19

선교사 이야기

Hall, Rosetta Sherwood(로제타 셔우드 홀)

출생 : 1865. 미국

별세 : 1951. 미국

교단 : 감리교

한국 활동기간 : 1890 ~ 1935

Hall, Sherwood(셔우드 홀)

출생 : 1893. 한국

별세 : 1991. 캐나다

교단 : 감리교

한국 활동기간 : 1926 ~ 1941

홀 家 이야기

평양에서 의료봉사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다

윌리엄 홀은 캐나다 벽촌의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자수성가로 의대를 마치고 의사가 되었고, 뉴욕 빈민가에서 의료 봉사를 하면서 만난 의사 로제타와 약혼을 하였다. 약혼녀인 로제타는 먼저 한국에 선교를 위해 들어오고, 윌리엄은 약혼녀 보다 1년 늦은 1891년 한국에 들어와 두 사람은 서울에서 결혼하였다. 이들 부부는 1894년 평양선교 개척의 중책을 맡고 아직 채 한 살이 안된 아들과 함께 평양으로 가는데, 온갖 핍박 속에서도 이들 부부는 의료 봉사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였다.

1894년 평양에서 벌어진 청일전쟁 후에 부상자들과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던 윌리엄은 자신도 전염병에 걸리게 되었다. 뒤늦게 서울로 와서 아내의 돌봄을 받았지만 1894년 11월 24일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아내의 품에서 세상을 뜨고 말았다. 이때 그의 아내, 로제타는 임신 7개월 중이었다.

남편과 딸을 잃어도 일평생 계속된 헌신

29살의 나이로 남편을 잃은 로제타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딸 에디스를 낳은 후 두 자녀를 데리고 1897년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녀는 평양에 남편을 기념하는 '기홀 병원'을 세우고 직접 부인과장으로 일하였다. 이 때 사랑하는 딸 에디스도 이질로 희생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녀의 헌신은 계속됐다. 그녀는 김점동(나중에 박에스더라고 불림)이라는 한 여성을 미국에까지 데리고 가서 의학교육을

시켰다. 박에스터는 의학공부를 마치고 한국 최초의 여의사가 되었다.

로제타는 한글 맞춤법에 맞는 점자법도 개발하여서 최초의 시각장애인 학교를 세우기도 하였으며, 여성 의사와 간호사를 양성하는 일에도 헌신하였다. 남편과 딸을 잃으면서도 그녀의 헌신은 43년이나 지속되었다.

폐결핵 퇴치를 위해 힘쓰다

이들의 아들, 셔우드 홀은 토론토 의대를 졸업하고 역시 의사이던 부인 메리언과 함께 한국에 와서 16년 동안 의료 선교를 하였다. 그는 특히 폐결핵을 치료하는 전문가가 되었는데 그것은 이모처럼 따르던 박에스터가 폐결핵으로 희생되었기 때문이다. 셔우드 홀은 해주에 최초의 폐결핵 요양원을 세우고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당시 폐결핵 환자는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된 채 비참한 생활을 감수해야만 했는데 셔우드가 이들에게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뻗은 것이다.

또한 그는 한국 최초의 크리스마스 썰을 만들어 결핵환자들을 돕기도 했다. 그는 1940년 크리스마스 썰로 독립자금을 모았다는 등 일제가 꾸민 간첩혐의로 체포되었다가 겨우 풀려나 한국을 떠나게 되었다. 한국을 떠나기 바로 직전 미국 선교본부로부터 인도에 의료선교사로 가라는 서신을 받았고, 그의 가족들은 지체 않고 일본으로 가서 인도로 가는 배를 바로 탔다. 셔우드 홀 부부는 인도에서 1963년까지 결핵퇴치운동을 벌였다.

*로제타 셔우드 홀(Rosetta Sherwood Hall, 1865.9.19.~1951년.4.5)

부인 로제타 홀은 1865년 뉴욕에서 출생하여 펜실바니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6세의 처녀로 1890년 10월에 미 감리회 의료선교사로 내한하여 일년 후 뒤따라 온 약혼자 윌리엄과 1892년 서울에서 결혼했다. 선교초기에는 간호사를 양성하고 스크랜튼이 경영하는 상동시 병원에서 의료활동을 하였다.

결혼 2년 반만에 남편 윌리엄이 죽어 불과 29세의 나이에 과부가 되어 미국으로 돌아가 딸 에디스를 낳은 후 두 아이를 데리고 윌리엄이 이루지 못한 조선을 향한 사랑을 내가 이루리라 결심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

1898년 평양에 광혜여원을 설립하고 미국서 배운 맹인 점자로 맹인 교육을 실시하여 평양 맹아 학교의 시작이 되었다. 또한 홀의 기념병원인 기홀 병원을 평양에 설립하기도 했다. 이 병원은 북 장로회가 운영하던 평양 제중원과 통합하여 1920년 평양 기독교병원이 되었다.

그녀는 스크랜튼 선교사가 설립한 최초의 여성전문 병원인 보구여관에서 한국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부터 진료를 시작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환자들을 찾아 직접 성 밖으로 왕진을 다녔다. 또한 당시 천민과 농민들이 주로 살았던 동대문 지역에 부인병원을 세워 동대문 바깥에 사는 소외된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의료 사역을 다져가며, 수도권 일대에서 강습회와 무료 진료를 계속해 나갔다.

그 당시 로제타 홀이 운영한 동대문 부인병원은 현재 이화여대 목동 병원이 되었다. 로제타 홀은 한국에 도착하면서부터 마음에 품었던 최초의 한국 여성의료인 양성도 시작한다. 이화학당에서 생물학과 약학 등을 가르치며, 여성 스스로 교육과 의료에 눈을 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그중 수제자처럼 데리고 있던 박에스터를 미국 볼티모어 의과 대학에 입학시켜 한국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직접 여자의학전문학교인 '경성여자의학강습소'를 세워 6명의 여자 의사를 처음으로 배출해낸다.

경성 여자 의학강습소는 경성 여자 의학전문 학교로 승격된 후, 고려 대학교에 병합되어 고려대학교 의과 대학의 전신이 되었다. 로제타 홀은 전적으로 한국 여성을 위해 한국 여성이 스스로 교육을 받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간 것이다. 로제타의 유복자인 딸 에디스도 이질에 걸려 죽고 마는데 그녀는 남편과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그녀의 헌신은 43년 계속되었다.

그녀는 4권의 일기와 2권의 육아일기를 남겼는데, 그 속엔 고난 속에서도 조선 백성을 위해 헌신했던 여 선교사의 삶이 생생하게 녹아있다. 1940년 한국을 떠나 1951년 4.5일 85세로 뉴저지에서 소천하고 유해는 화장되어 양화진의 남편 곁에 뿌려졌다.

양화진에 묻힌 그녀의 묘비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다.

*셔우드 홀(Shewood Hall 1893.11.10~1991.4.5)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 홀과 어머니 로제타 셔우드 홀 사이에 태어난 아들

대한 결핵협회에서 1993년 셔우드 홀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 양화진에 공적비를 세웠는데 비문에 그의 생애와 한 일이 다 담겨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다.

"캐나다인 셔우드는 1893 년 11월 10일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자라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결핵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고 결핵 퇴치에 헌신할 것을 결심. 토론토 의대 졸업 후 역시 의사가 된 메리안 버텀리와 결혼하여 1926 년 함께 감리교 의료 선교사로 해주 구세병원에 부임했으며 한국 최초로 1928 년 근대적 결핵 요양원을 설립하고 1932 년에는 크리스마스 seal을 발행했다. 1940 년 일제에 의하여 강제 추방 될 때까지 결핵환자 치료와 seal발행을 계속했으며 한편으로는 모범농장을 일구어 새 영농기술을 보급하고 의창 학교교장으로서 교육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2대에 걸쳐 한국인에게 봉사한 공을 찬양해 1984년 한국 정부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서울시에서는 명예 시민증을 수여했다" 1940년 일제는 셔우드 홀이 크리스마스 실로 독립자금을 모았다는 누명을 씌워 간첩혐의로 체포되었다가 겨우 풀려나 한국을 떠나게 되고 미국 선교 본부로 부터 인도에 의료 선교사 파송을 받아 인도에서 1963년까지 결핵 퇴치 운동을 벌였다.

그가 한국서 활동한 기간은 1891.12~1894.11.24 일까지이다. 1991년 4월 5일 98세를 일기로 소천하여 4월 10일 리치먼드 사우스 암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유해는 유언에 따라 한국으로 돌아와 1991년 4월 17일 대한결핵협회 장(葬)으로 양화진에 안장되었다.

홀 가문의 4명의 선교사역 기간을 합치면 무려 79년이다

윌리엄 제임스 홀: 아내와 함께 의료 활동을 했다. 1894년 청일전쟁 와중에 평양 전투로 인해 청인과 조선인을 가리지 않고 치료하다가 티푸스에 걸려 사망

셔우드 홀 - 의료활동. 위의 홀 부부의 아들. 국내 최초로 크리스마스 썸 도입

에디스 홀- 위의 홀 부부의 딸로 윌리엄 홀의 유복자이다. 1895년에 태어나 3세에 사망했고, 부모곁에 묻혔다.



Scranton, Mary F.(메리 스크랜턴)

- 출생 : 1832. 미국
- 별세 : 1909. 한국
- 한국활동기간 : 1885 ~ 1909
- 국적 : 미국
- 소속교단 : 감리교
- 묘비번호 : B-44(m)

선교사 이야기

“한국 근대 여성 교육과 여성 전도의 선구자”

한국 근대 여성 교육의 선구자(이화학당 설립)

스크랜턴 대부인 (함께 온 며느리 '스크랜턴 부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대부인으로 불려짐)은 이화학당을 통해서 근대 여성 교육의 선구자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녀는 52세 되던 1884년 미감리회 해외 여선교회로부터 한국선교사로 임명 받고, 이듬해 외아들 내외와 함께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한국에 들어와서는 익숙하지 않은 음식과 환경으로 많은 고생을 하였다.

스크랜턴 대부인은 자신의 집에서 학당을 시작하였는데 처음에 온 학생들은 버려진 아이들과 첩들이었다. 처음엔 낮 선 이방인에 대한 이웃사람들의 불신이 있었지만, 불신이 차츰 사그라지면서 학생들의 숫자는 점차로 늘어났고 조정에서도 ‘이화학당’이라는 이름을 하사하였다.

이화학당에서는 한동안은 한국인 남자 선생이 막을 쳐놓고 그 뒤에서 여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호기심 때문인지 학생들이 많이 참석했다. 1889년 이화학당의 학생 수는 26명으로 늘어났다. 1896년에 기포드가 쓴 글을 보면 당시 기숙사생이 47명, 통학생이 3명이고, 평균연령은 12살, 최연소자는 8살, 최고 연장자는 17살이었다. 수업은 한글과 영어로 기초과목과 종교과목을 가르쳤다. 스크랜턴 대부인은 학생들이 한국적인 것을 자랑스러워하기를,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을 통해서 훌륭한 한국인이 되기를 원하였다.

전국 곳곳을 다니며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1891년에 이화학당장 자리를 로드 와일러에게 물려주고 미국에 안식년을 다녀온 후부터 그녀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접 전도하는 일에 주력하였다. 당시 여성 선교사들의 숫자는 아주 적었고, 온갖 벽들에 둘러싸인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일은 여성들만이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스크랜턴은 ‘전도부인’을 조직하여 동역하였다.

스크랜턴 대부인이 1898년에 쓴 보고서에 보면 모두 8명의 전도부인들이 그녀와 동역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전도부인은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복음을 받아들인 여성들은 스크랜턴 대부인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기를 원하여서 각지에서 편지를 보내왔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인 1907년 75세 때 쓴 보고서를 보면 이 할머니 선교사의 사랑과 열정은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데, 만약에 열 사람의 선교사가 있었으면 몇 가지 일에만 집중했을 것이고 훨씬 일을 잘 해냈을 것이라고 토로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52세의 늦은 나이에 조선에 들어온 스크랜턴 대부인은 24년 동안 조선 여성들을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77세 때 별세하여 이곳 양화진에 안장되어 있다.

스크랜턴, M.F. - 이화학당(한국 최초의 여학교)과 삼일소학당 설립

스크랜턴 대부인은 이화학당을 통하여 근대 여성교육의 선구자 역할을 한 인물이다.

52세 되던 1885년 외아들 내외와 한국에 왔으며 이화학당을 열어 많은 여학생을 가르쳤다.

스크랜턴 선교사는 전도부인을 조직하여 여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다.

그녀는 24년동안 조선 여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76세 때 세상을 떠났다.

메리 스크랜턴 대부인(함께 온 며느리 스크랜턴 부인과 구별함)

미국 매사추세츠 벨처타운에서 1832년 출생하여, 1855년 윌리엄 T. 스크랜턴(William T. Scranton)과 결혼하였고, 외아들을 낳았다. 40세에 남편과 사별한 후 미 감리회 해외 여선교회 연회의 서기로 봉직했다. 그녀가 53세의 늦은 나이에 1885년 2월 3일 외아들 내외와 두 살 된 손녀, 아펜젤러 가족 일행과 함께 미 북감리회 첫 여선교사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 2월 27일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하였다.

한국의 국내 사정으로 인해 잠시 일본에 머문 후 6월 20일 내한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 주로 버려진 아이들과 첩들로 학당을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이방인에 대한 불신과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차츰 학생수가 늘어나고 조정에서도 '이화학당'이라는 이름을 하사할 정도가 되었다.

수업은 한글과 영어로 기초 과목과 종교과목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양성해 나갔다. 이화 학당은 표면적으로는 교육 기관이었으나 선교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정동 제일교회 초대 여성 교인은 거의 이화 학당 학생이었다. 상동교회에서 전도부인을 대상으로 단기 성경 교육을 시작 한 것이 후일 협성 신학교로 발전했다.

1903년에는 수원 삼일학교(매향학교)를 설립하므로, 수원, 공주지역의 지방 선교 활동이 시작되었다. 교회가 설립되었지만 여성들을 교육할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여성 선교 사업을 계획하고 이에 대한 인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감당했다.

또한 그녀는 당시 근대 의료 기술을 받기 어려웠던 한국 여성들을 위해 미국 감리회 지원을 받아 1887년 서울 정동에 병원을 세우고 여의사 메타 하워드(1862~1930)를 초빙, 여성 진료를 시작했다. 이듬해 고종 황제는 여성을 보호하고 구하라는 의미의 '보구여관'이라는 이름을 하사했고, 그 이름처럼 질병과 인습에 고통 받던 많은 여성들을 보호하고 구했다. 보구 여관은 여성 의학 교육의 최초 현장이기도 했다.

1892년 보구여관 의사 로제타 홀(1865~1951)이 다섯 명의 조선 여학생을 선발해 의학 교육을 시작했으며, 1900년 볼티모어 의대를 졸업한 한국 최초 여의사 박에스더(김정동)가 탄생했다. 현재 이화대학 부속병원의 시초가 된 이 (보구여관이 (1887~1912)~ 릴리안 해리스 기념병원(1912~1930)~ 동대문 부인병원(1930~1945)~ 이대 동대문 병원(1945~2008),~이화 의료원(1973~)으로 이어진 130년의 역사가 오늘날 약 4300명의 의사를 배출한 최고의 의과 대학으로 성장하였다.

그의 저서(단행본)로는 《그리스도 성교문답》《지구 약론》등이 있다.

학생수가 늘면서 2층의 붉은 벽돌집을 지었는데 이 건물은 당시 화제가 되었으며 스크랜턴 선교사를 대부인이라 호칭했다.

1908년 5월 31일에는 이화 학당 초대 ‘메이 쿤’으로 추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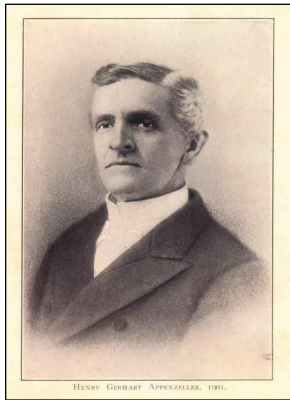
1903년에는 수원 삼일학교(매향학교)를 설립하므로, 수원, 공주지역의 지방 선교 활동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이화 여고와 이화 여자 대학의 전신인 이화학당과 수원에 위치한 매향 여자 정보 고등학교의 창설자이다.

1891년에 이화 학당장 자리를 로드 와일러에게 물려주고 미국에 안식년을 다녀온 후부터 그녀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접 전도하는 일에 주력하면서 ‘전도 부인’을 조직하여 동역하였다. 스크랜턴 대부인이 1898년에 쓴 보고서에 보면 모두 8명의 전도 부인들이 그녀와 동역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전도 부인은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53세의 늦은 나이에 조선에 들어온 스크랜턴 대부인은 24년간 한국 여성 교육의 선구자로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여성 교육에 진력하다가. 1909년 10월 8일 새벽 상동 자택에서 소천하였다.

그의 저서(단행본)로는 《그리스도 성교문답》《지구 약론》등이 있다.

비문에는 “오늘 이 땅에 자유 사랑 평화의 여성 교육이 열매 맺으니, 이는 스크랜턴 여사가 이화 동산에 씨 뿌렸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Appenzeller, Henry Gerhard (아펜젤러)

- 출생 : 1858. 2. 6 미국
- 별세 : 1902. 6. 11. 한국
- 한국활동기간 : 1885. 4. 5 ~ 1902. 6. 11.
- 국적 : 미국
- 소속교단 : 감리교
- 묘비번호 : B-37

선교사 이야기

“교육 선교사로서 대대로 헌신한 가족 선교사”

배재학당을 세우고 민주주의와 독립정신을 키우다

아펜젤러는 드루신학교 학생 신분으로 미국 북감리회 한국선교사로 지원하였다. 아내 엘라와 결혼하고 두 달만이었다. 한국에 들어온 아펜젤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국에서 교육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가 시작한 학교는 고종으로부터 '배재학당'(유능한 인재를 기르는 학교)이라는 학교명을 하사 받았다.

배재학당에는 점차로 복음의 능력이 퍼져서 많은 학생들이 세례를 받고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다. 아펜젤러는 배재학당 안에 '협성회'라는 토론회를 조직하고 독립협회의 서재필, 윤치호 등을 강사로 초청해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독립정신을 고취시켰다. 그는 복음의 능력이 개인의 구원에 국한되지 않고 고난 당하는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까지 확장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한국 감리교의 초석을 놓다

아펜젤러는 한국 감리교의 초석을 놓은 선교사이다. 1887년 10월 아펜젤러는 벨엘이라고 이름 지어진 집에서 감리교 최초의 공중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1897년 12월 26일 성탄 주일에는 붉은 벽돌로 지어진 벨엘 예배당의 헌당식을 드렸다. 이 때 아펜젤러는 10년 전 벨엘에서의 첫 설교를 반복하였다.

"나는 성탄절날, 10년 전인 1887년 성탄절에 한국에서 감리교 목사로서 처음 시도한 공식 설교를 되풀이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가로 8자 세로 12자의 한 조그마한 방에서 예배했지만, 지금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성별하여 바치려는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나라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판 분야에 공헌,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 위원회를 조직하다

그는 출판 분야에서도 두드러진 공헌을 하였다. 배재학당 안에 삼문출판사라는 인쇄소를 만들고, 기독교 소책자들과 <독립신문>등 일반신문을 인쇄하였다. 또한 아펜젤러는 언더우드, 스크랜턴과 더불어 성경 번역 위원회를 최초로 조직해서 한글 성경 번역에도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으로 한국을 섬기던 아펜젤러는, 1902년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 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던 중 선박 사고로 순직하였다. 이 때 그의 나이 44살이었습니다. 한국에 27살 때 들어왔으니 17년 동안 선교사로 일한 것이다.

아버지의 뒤를 이은 한국 사랑

아펜젤러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한국에서 일평생 교육선교사로 헌신하였다. 아들 아펜젤러 2세는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배재학당의 교장과 이사장으로 일하였으며, 딸 엘리스 레베카 아펜젤러도 이화학당을 맡아 1925년 이화학여자전문학교로 승격시키고 초대 교장이 되어 섬겼다.

H.G. 아펜젤러(1858-1902. 미국 북감리회 선교사)의 묘소.



아펜젤러는 한국 감리교의 초석을 놓은 선교사이다. 그가 세운 배재학당은 복음의 가치관 위에서 민족을 섬긴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였다. 최초의 감리교회인 정동감리교회를 설립하였고 한글성경번역에도 참여하였다.

1902년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번역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가던 중 배가 침몰해 순직하였다. 펜실바니아에서 태어난 그는 프랭크 앤 마셜 칼리지를 졸업한후 감리교 신학교인 드류 신학교(Drew Theological Seminary)를 수학과 1885년 미 감리교 선교사로 결혼 두달 만인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장로교 선교사인 .H.G 언드우드와 함께 제물포 항에 첫발을 디었다.

한국에 첫 발을 내딛고 아펜젤러와 언드우드가 드린 첫 기도가 선명하게 묘비에 쓰여있다. 그는 신학문에 뜻을 두고 교육사업을 시작하여 고종황제가 친히 이름과 현판을 하사하여 설립한 최초의 서양식 학교인 배재학당(1886.6.8)과 한국 최초의 감리 교회인 정동 제일교회(1887.10.9.)를 설립하였다.

아펜젤러는 배재학당 안에 협성회라는 토론회를 조직하고 독립협회의 서재필, 윤치호 등을 강사로 초청해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의식과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 아펜젤러는 출판 분야와 성서번역 분야에서 두드러진 공헌을 하였다.

그는 배재학당 안에 삼문 출판사라는 인쇄소를 만들고, 기독교 소 책자들과 독립 신문등 일반 신문도 인쇄하였으며, 언더우드, 스크랜턴과 더불어 성경 번역위원회를 최초로 조직해서 한글 성경 번역에도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

또한 언더우드 계일과 함께 성서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에 참여하였고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를 순 한글로 창간(1897.2)하였다. 또한 한국 문화 연구와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1902년 44세때에 성서 번역 위원회 참석차 배를 타고 제물포를 출발하여 목포로 가던 중 서해 해청도 군산 부근에서 해상 충돌사고를 당하여 조선인 여학생을 구하려다 익사하여 차가운 바다에 시신을 찾지 못하고 현재 양화진에 있는 그의 묘는 가묘이다.(한국 활 동기간 1885.04.05~1902.06.11)

같이 성서 번역일을 하던 J.S.게일 선교사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는 그의 생명을 성경 번역을 위해 바쳤다 . 이제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매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H.G 아펜젤러의 자녀들도 교육 출판 성경번역의 선구자였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교육과 선교에 헌신했다

*2세 아들 헨리 단지 아펜젤러(Henry Dodge Appenzeller 1889.11~1953.12.1)



서울 정동에서 태어났으며 1907년 1911년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1915년 Drew 신학교를 졸업했다. 1917년 뉴욕에서 M.A 학위를 받고 1917년 9월 선친의 뜻을 계승하여 감리교 선교사인 부인과 함께 한국에 왔다. 인천지방서 3년간 활동하다가 1920년부터 20년간 아버지가 설립한 배재학당 교장으로 헌신했다.

학생들에게 신앙과 애국심을 강조해 한때 일제로부터 교장 인가를 취소당하는 고초를 당했다.

1919년 11.6일 미 감리회 한국 연회 서기로 피선되어 1924년까지 연임하였다.

조선 예수교 연합 공의회 찬송가 개정 작업에도 동참하여 1931년 신정 찬송가 발행에도 공헌했다.

1953년 12.1 백혈구 부족으로 인한 건강이 악화로 미국에서 치료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임종 전 "나를 한국 땅에 묻어주고 아버지께서 조선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유언을 남겨 1954년 10.18일 유해가 한국으로 돌아와 정동교회서 사회장으로. 거행되고 양화진에 안장되었다.

*H.D 아펜젤러 부인 루스 로블 아펜젤러(Ruth Noble Appenzeller 1894~1986.11.25)

루스 는 1892년 미 감리교 선교사로 내한하여 배재학당과 평양지방 감리사로 1943년까지 활동했던 노블 선교사(Nobel William Arthur)의 딸로 1894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평양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미국서 중.고 대학을 공부하고 H.D 아펜젤러와 미국서 결혼했다.

1917년 남편과 함께 내한하여 같이 감리교 선교사로 봉직하다가 일제에 의해 1941년 강제 출국당했다.

1950년 세계 봉사회 한국 지부 대표로 부임한 남편을 따라 다시 한국으로 와서 1962년 까지 정동에 있는 감리교 선교사 게스트 하우스 책임자로 봉사하였다.

정년 후에 재혼하여 미국에 살다가 1986년 사망하여 1987년 유해가 한국으로 돌아와 정동 교회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양화진 묘역에 안장되었다.

*딸 엘리스 레베카 아펜젤러(Alice Rebecca Appenseller 1885.11.9~1950.2)



한국에서 태어난 최초의 서양아이 선교사 자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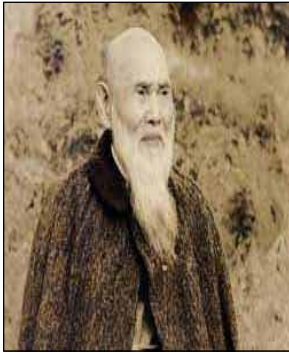
군산 앞바다에서 부친이 선박 사고로 순직할 때 그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서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미국 웨슬리 대학을 졸업하고 30세인 1915년에 감리교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여성 교육에 헌신하였다.

평생 독신으로 지내며 인재 육성에 주력했던 그녀는 이화학당을 이화여자 전문 학교로 승격시키고 교장으로 일했다.

1939년에 한국인 김활란 박사에게 총장직을 물려주고 1940년 일제의 탄압으로 잠시 한국을 떠났다가 1946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명예 총장으로 일하다가 1950년 학교 체플 시간에 쓰러져 순직하였다.

묘비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노라" 하는 글이 새겨져 있다.



曾田嘉伊智 (소다 가이치)

- 출생 : 1867. 10.20.일본
- 별세 : 1962. 3.28. 한국
- 한국활동기간 : 1905 ~ 1945, 1961 ~ 1962
- 국적 : 일본
- 묘비번호 : C-20(m)

선교사 이야기

소다 가이치는 양화진에 안장되어 있는 유일한 일본인이며, 또한 한국정부로부터 처음으로 문화훈장을 받은 일본인이다. 그가 한일 간의 국교가 정상화되기도 전에 이렇게 한국인들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소다와 그의 부인이 한국 고아들을 위해서 삶을 바쳤기 때문이다.

사실 그의 젊은 시절은 홍콩에서 대만을 거치는 방항과 혼란의 연속이었다. 대만에서 쑨원(손문)의 혁명운동에도 가담하였고 산악지대를 방랑하다가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겼다. 이렇게 방랑하던 소다가 어느 날 술에 만취된 채 노상에서 쓰러져 거의 죽게 되었다. 이때 무명의 한국인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업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해주고 밥값도 내어 주었다. 그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 사람 덕분에 목숨을 구한 것이다.

그로부터 6전 뒤인 1905년, 소다는 은인의 나라인 한국에 은혜를 갚으리라 결심하고 서울 YMCA 일본어 선생으로 취직하였다. 소다는 이 무렵, 수감 중 예수를 믿게 되었다가 풀려 나온 이상재 선생에게 큰 감화를 받아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는 41세 때 독실한 신앙인인 30세의 우에노 다키와 결혼하였다.

소다는 105인 사건(1911년)으로 YMCA 동료들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온갖 고문을 당하자, 일제의 만행을 공격하면서 동료들의 석방을 위해서 백방으로 힘썼다. 이 때 한국인들로부터 감사와 찬사도 들었지만 간사한 일제의 간첩이라는 비방도 감수해야만 했다.

1921년부터 45년까지 소다 부부는 천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았다. 이 사역을 하면서 이들이 겪은 고생과 역경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버려진 아기를 업고 유모를 찾다가 구박을 당한 일, 소다의 고아원에서 자란 청년이 항일운동을 하다가 헌병대에 체포되어 소다가 취조를 당한 일, 거짓 위선자라고 비방 받은 일도 있었다.

소다는 일제의 패망 후 홀로 일본으로 돌아가서 한 손에 세계평화라는 표어를, 또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조국 일본의 회개를 외쳤다. 한국에 남아서 고아사업을 계속하던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소다는 부인의 부음소식을 듣고도 찬송과 감사를 드렸다고한다. 한경직 목사 등의 초청으로 94세 되던 1961년 한국으로 돌아온 소다는 영락 보린원에서 1년 동안 고아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소다 가이치(1867-1962, 일본, 사회사업가) 한국 고아의 자애로운 아버지(慈父)



소다 가이치는 양화진에 안장돼 있는 유일한 일본인으로, 부인과 함께 한국 고아들을 위해 삶을 바쳤다. 그는 1921년부터 해방될 때까지 천 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았고, 일제 패망 후에는 일본에서 복음을 전했다. 1961년 한경직 목사의 초청으로 한국으로 돌아와 영락보육원에서 고아들과 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가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힌 이유를 비문(碑文)을 통해서 설명한다.

<소다(曾田) 선생은 일본 사람으로 한국인에게 일생을 바쳤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나타냄이라. 1867년 10월 20일 일본국 야마구치(山口) 현에서 출생했다. 1913년 서울에서 가마쿠라보육원(鎌倉保育院)을 창설하매, 따뜻한 품에 자라난 고아(孤兒)가 수천이리라. 1919년 독립운동 시에는 구속된 청년의 구호에 진력(盡力)하고, 그 후 80세까지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 종전 후 일본으로 건너가 한국에 대한 국민적 참회(懺悔)를 순회 역설했다. 95세 5월, 다시 한국에 돌아와 '가마쿠라보육원(鎌倉保育院)' 자리에 있는 '영락(永樂)보린원'에서 1962년 3월 28일 장서(長逝)하니 향년(享年) 96세라. 동년(同年) 4월 2일 한국 사회단체 연합으로 비(碑)를 세우노라. 1950년 1월, 부인 다키코' 여사도 서울에서 서거(逝去)했다.> (나이는 음력과 양력이 혼재).

‘소다(曾田) 선생의 업적과 함께 그가 한국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상세히 적혀 있다.

<그의 젊은 시절은 방황과 혼란의 연속이었다. 어느 날 ‘소다(曾田)’가 (대만에서) 술에 만취된 채 노상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다. 이 때 무명의 한국사람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1905년 ‘소다(曾田)’는 은인의 나라인 한국에 은혜를 갚으리라 결심하고, 한국에 와 서울 YMCA 일본어 선생이 되었다.>

‘성(性)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은혜를 갚기 위해 조선을 사랑했다?’

참으로 특이한 성격의 소유자 아닌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이름 모를 한국 사람을 위해 그 나라에 헌신한다’는 마음가짐- 그야말로 진정한 인간애를 지닌 사람인 듯싶다.

이를 뒷받침하는 글은 일본의 원로 역사학자 ‘다카사키 소지(高崎宗司·76)’의 <아사카와 다쿠미 평전>에도 담겨 있다.


<아사카와 다쿠미(巧) 씨의 장례식에서 성경을 읽은 경성 감리교회의 전도사 ‘소다 가이치(曾田嘉伊智)’는 ‘조선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한 사람이다. 그는 1867년 일본의 야마구치(山口) 현에서 태어나 1905년 조선으로 건너갔다. 1899년 대만에 있을 때 길가에 쓰러져 있던 그를 조선인이 살려줘서 은인(恩人)의 모국에 마음이 끌렸기 때문이다.>

소다 가이치-. 그는 1962년 3월 28일 상오 서울 용산구 후암동 370번지 영락(永樂) 보린원에서 별세했다. 선생의 죽음에 대해 많은 조선인들이 슬퍼했다. 그의 장례식은 한국 사회단체연합장으로 성대하게 치러졌다. 정부·사회단체 관계자 및 시민 2,000여명이 참가했다. 그 당시 언론들은 ‘국경과 민족의 벽을 넘은 진실의 사랑과 봉사자’라고 대서특필했다.

95세의 나이에 다시 한국에 오다

가마쿠라(鎌倉) 보육원의 경성지부는 한국에서 근대식 고아원의 효시였다. 소다는 해방 후 일본에 돌아갔다가 다시 한국에 왔다. 영락 보린원에서 일년 여 동안 기거하다가 생을 마감했다. 평소 가슴에 간직했던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는 뜻을 이뤘던 것이다.

이러한 그에게 정부는 1961년 문화훈장을 수여했다. 한일 국교정상화가 되기 전의 일이라 이례적인 일로 평가됐었다. 그의 역할이 얼마나 지대했는지 미루어 짐작이 간다. 그는 생전에 고아들을 돕기 위해 식품이나 의류가 동이 나면 헌옷이나 식료품을 모집하러 다녔다. 일본인들은 그를 보면서 ‘국가의 수치(羞恥)다’고 비웃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고아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는 일에만 몰두했다.

	Baird, William M.(베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 : 1862. 6. 16. 미국 - 별세 : 1931. 11. 29. 평양 - 한국활동기간 : 1891. 3. 25 ~ 1931. 11. 29 - 국적 : 미국 - 소속교단 : 장로교 - 묘비번호 : F-18(M)

선교사 이야기

“평양 숭실대학을 설립하고 발전시킨 교육 선교사”

숭실대학을 설립하다

베어드는 평양에 숭실학당을 세워 이를 숭실중학, 숭실대학으로 발전시킨 교육 선교사이다. 베어드는 해외 선교의 열정이 대단하였던 시카고의 매코믹신학교 출신이다. 학업에 대한 그의 열정은 남달라서, 선교사로 활동하면서도 철학과 신학 박사 과정을 마칠 정도였다. 1891년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온 베어드 부부는 몇 년 동안 부산과 대구를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하였다.

1897년에 평양으로 선교지를 옮긴 후에는 자신의 사랑방에서 13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학당을 열었다. 3년 후 이 학당은 숭실중학으로 성장하였고, 1906년에는 합성숭실대학(Union Christian College)으로 발전하였다.

그의 부인 애니 베어드 선교사는 한글로 물리학, 동식물학 교과서를 번역하고 많은 글들을 남겼는데, 안타깝게도 암으로 1916년에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 해 숭실대학 학장을 사임한 베어드는 이후로는 문서선교와 구약성경 개역작업에 힘을 쏟았다. 1931년 숭실전문학교와 중학교 교장이던 맥쿰의 초청으로 숭실 개교일에 참석한 베어드는 한 달 후 장티푸스에 걸려 별세 하였다.

베어드, W.M. - 숭실학당 설립 ☆

베어드는 평양의 숭실대학을 설립하고 발전시킨 교육선교사였다.

1891년 한국에 온 베어드 부부는 수년 동안 부산과 대구를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하였다.

1897년에 평양으로 선교지를 옮긴 뒤에는 자신의 사랑방에서 학당을 열었다.

이 학당은 숭실중학으로 성장하였고 1906년에는 협성숭실대학으로 발전하였다.

베어드는 노년에 구약성서의 한글 번역에 크게 공헌하였다.

양화진에는 베어드 부부의 기념비가 있다.

베어드, W.M는 숭실대학을 설립한 교육 선교사다. 1891년 한국에 온 베어드 부부는 초반 몇 년 동안에는 부산과 대구를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했다. 1897년 선교지를 평양으로 옮긴 후 숭실학당을 열었다. 이 학당은 숭실중학으로 성장했고 1905년 숭실대학으로 발전했다. 양화진 묘원에는 베어드 부부 기념비와 두 아들의 무덤이 있다.



Shaw Family , William Earl & Hamilton (윌리엄 쇼 부자)

- 출생 : 1890. 미국
- 별세 : 1967. 미국
- 한국활동기간 : 1921 ~ 1961
- 국적 : 미국
- 소속교단 : 감리교
- 묘비번호 : F-21

선교사 이야기

“한국 군목 제도 창설 공로자”

한국 군목 제도 창설 공로자

윌리엄 얼 쇼(이후 얼 쇼로 칭함) 선교사는 우리나라 군목제도 창설에 기여했으며, 군 복음화의 초석을 닦았다. 얼 쇼는 1890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나 웨슬리안대학을 졸업한 후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유럽전선에서 군목으로 종군했으며, 전쟁이 끝난 후 미국 콜롬비아대학원에서 공부했다. 이후 그는 1921년 아내 아델린(1919년 결혼)과 함께 미국 감리교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왔다.

그들은 일제 치하의 한국에서 감리회 평양선교부에 배속되어, 얼 쇼 선교사는 광성학교에서, 아내 아델린 선교사는 송덕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했다. 얼 쇼 선교사는 평안도 지방은 물론 황해도와 만주에서도 선교활동을 펼쳤고, 평양에 요한학교를 설립하여 기독교 지도자 양성에도 힘을 썼다. 얼 쇼 선교사 부부는 약 20년 동안 선교사역을 감당했으나 일제의 강제 추방 조치로 인해 1941년 우리나라를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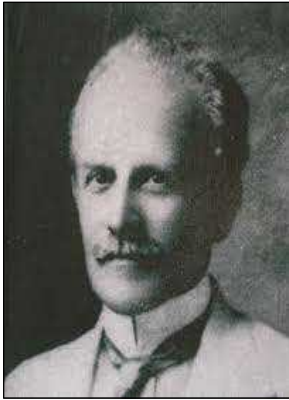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자 얼 쇼 선교사는 한국 선교사를 자원하여 1947년 다시 들어왔다. 쇼 선교사는 1950년 한국전쟁 때 주한미군 군목으로 활동하면서 한국군에 군목제도를 창설하는데 기여했다. 1954년부터는 대전신학교(현 목원대) 교수로 재직하며 목회자를 양성하는데 전력하는 한편 미국의 독지가들이 후원한 자금으로 목회자들의 수련과 휴양공간인 목자관과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외아들 윌리엄 해밀턴 쇼를 기념하는 예배당을 학교 구내에 설립했다. 그는 1961년 40년에 걸친 선교사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여 미국에서 여생을 살다가 1967년 별세했다.

얼 쇼 선교사 부부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윌리엄 해밀턴 쇼(이후 해밀턴 쇼로 칭함)이다. 해밀턴 쇼는 1922년 평양에서 태어나, 군인 시절에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가했으며, 해방된 우리나라에 와 국군해안경비대 창설에 기여했다. 군 복무를 마친 후 해밀턴은 하버드대에서 공부하며 박사과정을 밟던 중,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다시 자원입대하여 해군 장교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그는 맥아더 장군이 지휘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고, 이어 서울 녹번동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전사했다. 당시 그의 나이 28세였다. 그의 유해는 당시 한국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던 아버지 얼 쇼 선교사에 의해 양화진에 안장되었다. 해밀턴 쇼의 아내 주아니타(서화순)는 남편이 전사한 6년 후인 1956년 감리교 선교사로 한국에 와 10여 년 동안 이화여대에서 교수로 재직하였다.

양화진에는 윌리엄 쇼-아델린 쇼 선교사 부부와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외아들 해밀튼 쇼가 안장돼 있으며, 서울 녹번동에는 한국 해군이 세운 해밀튼 쇼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쇼, W.E. - 국내 군종 창설



Underwood, Horace Grant(언더우드)

- 출생 : 1859. 영국
- 별세 : 1916. 미국
- 한국활동기간 : 1885 ~ 1916
- 국적 : 미국
- 소속교단 : 장로교
- 묘비번호 : F-25

선교사 이야기

“한국 선교의 개척자 3대에 걸쳐 조선기독교대학(연세대학교)에서 헌신”

신혼여행으로 전도여행을 가다

언더우드는 한국 선교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다. 선교 초기 그의 흔적이 묻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그는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양화진 언더우드가의 가족 묘역에는 4대에 걸쳐 모두 7명이 묻혀 있다. 언더우드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26세의 나이로 한국에 들어왔다. 당시 기독교 전파가 불법인 상황에서도 언더우드는 적극적인 선교활동을 펼쳤다.

그는 북한지방으로 여러 차례 전도여행을 가서 그 곳에 있던 많은 신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당시 세례 신청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로스 선교사와 한국인들에 의해서 만주에서 번역된 신약성경이 북한지방에 두루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언더우드는 8살 연상의 릴리아스 호튼과 서울에서 결혼하였는데, 이들은 신혼여행조차 전도여행으로 다녀올 정도로 선교에 대한 열망이 뜨거웠다. 언더우드는 의주에서 세례문답을 통과한 33명의 남자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 땅에 가서 세례를 베풀었다. 이들 신혼부부는 1600Km 이상을 여행하였고 600여명 이상을 치료하였다.

후배 선교사들을 한국으로!

언더우드는 미국으로 돌아가 안식년 기간을 보내는 중에도 강연과 신학교 방문 등을 통해서 직접 후배 선교사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하였다. 에비슨, 무어, 레이놀즈, 테이트, 리 등이 언더우드의 영향으로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선교사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언더우드 타자기의 소유자이던 언더우드의 형 (존 토마스 언더우드, John T. Underwood)이 재정을 지원한 덕분이었다.

성경번역과 사전 출판, 새문안교회와 조선기독교 대학 설립

언더우드는 초대 성경번역위원장을 맡은 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위원장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 하였으며, 한국에 오게 될 선교사와 외국인들을 위해서 손수 영한사전, 한영사전, 한국어문법서들을 만들어 직접 출판하기도 하였다. 언더우드는 최초의 장로교회인 새문안 교회의 설립자이다. 또한 그는 '조선기독교대학'(1917년 연희전문학교가 되고 1957년 세브란스의대와 합쳐져 연세대학교가 됨)를 설립해서 초대학장을 맡는 등 한국 대학교육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언더우드 2세는 아버지를 이어서 연희전문학교의 3대 교장으로 학교의 발전에 공헌하였고 한국전쟁 중에는 미군민간고문으로 일하였다. 그리고 언더우드 3세도 연세대학교의 교수와 재단이사로 봉직하였다.

언더우드, H.G. - 경신학교, 연희전문학교 설립

언더우드는 한국선교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는 1885년 4월 부활절인 26세때 내한하였다. 전도여행을 통한 적극적인 선교활동, 후배선교사 초청, 성서번역, 새문안교회(최초의 장로교회) 설립, 조선 기독교대학(연세대학교 전신) 설립 등 선교초기 그의 흔적이 묻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그는 한국교회와 사회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은인이다. 그는 1859년 7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13세 되던 해에 미국으로 건너갔다. 1881년 뉴욕대학을 졸업한 그는 기독교 선교에 몸을 바치기로 하고 미국의 네덜란드개혁교회 신학교(The Dutch Reformed Theologica Seminary)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그가 가고 싶은 곳은 인도였다. 1883년에 장로교 목사가 된 그는 다시 의학공부를 하면서 인도로 갈 날을 기다렸다. 그러나 1884년에 장로교 선교본부는 그를 아침의 나라 한국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는 곧장 한국에 오고 싶었지만 사정은 여의치 않았다. 마침 갑신정변이 일어나 국내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수 없이 일본에 머물며 그는 이수정이라는 한국사람에게 한국어의 기초를 익혔다. 1885년 4월 5일 인천에 도착한 그는 곧 서울로 와 선교활동을 펴려 했지만 우리 정부가 기독교 선교에 여전히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우선 광혜원(廣惠院)에서 물리와 화학을 가르쳤다.

*언더우드가 한 역할, 제대로 평가하고 감사해야

정부가 기독교 선교를 더 이상 탄압하지 않자 그는 곧 본격적인 선교활동에 돌입했다. 1887년 조선인 교우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동교회(현 새문안교회)를 세웠다. 그는 이 교회에 눌러앉지 않고 북한 지역을 세 차례나 돌며 선교에 열을 쏟았다.

그는 1889년에는 기독교 서적을 간행하기 위해 기독교서회(基督教書會)를 창설했다. 그는 성서번역위원회를 만들어 그 위원장을 맡아 마가복음 등 성서를 한글로 번역해 출간했다. 번역을 위해서는 한글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한글 공부에 열을 올린 그는 내친 김에 <한영사전> <영한사전>을 내는가 하면 우리말의 문법서인 <말본>도 저술했다. 그는 기독교 선교를 위해 1897년에는 주간신문인 <그리스도신문>도 창간했다.

국운이 기울어 가던 기독교청년회(YMCA)를 조직하는데 앞장 선 그는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전락한 뒤인 1915년에 YMCA 안에 조선기독교대학(Chosun Christian College)을 개설했다. 이 학교가 1917년에는 사립 연희전문학교로 발전했고, 1957년에 세브란스의과대학과 통합하여 오늘의 연세대학교가 되었다.



호레이스 언더우드(1859~1916). 한국에 처음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로 새문안교회와 연세대를 설립했다. 이 집안 4대 7명이 양화진에 묻혀 있다.



Avison, Oliver R.(에비슨)

- 출생 : 1860. 6. 30. 영국
- 별세 : 1956. 8. 29. 미국
- 한국활동기간 : 1892. 6 ~ 1935. 11
- 국적 : 미국
- 소속교단 : 장로교
- 묘비번호 : F-46(M)

선교사 이야기

“근대의학 발전에 공헌, 세브란스 병원 설립과 교육으로 한국을 섬긴 가족”

세브란스병원을 세우다

에비슨은 세브란스 병원과 의학교를 설립하고 성장시켜서 근대의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는 캐나다 시골의 궁핍한 영국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스스로 학비를 벌어서 학업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특유의 성실함으로 토론토 의대를 졸업하였다. 그는 모교에서 외과 교수로 봉직하면서 토론토 시내에 개업해서 이름을 날렸다. 그러던 차에 에비슨은 조선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언더우드를 토론토로 초청하여 교회와 학교에서 강연하도록 하였다. 이 때, 언더우드는 ‘조선에 선교사로 오지 않겠느냐’고 권유하였고, 이미 선교사로 헌신하길 결심하였던 에비슨 부부는 자신들의 사역지가 조선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1893년 한국에 들어온 에비슨은 처음에는 제중원의 책임을 맡아서 환자들을 진료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에비슨은 교단별로 산재해 있는 진료소들을 묶어서 규모가 있는 병원을 설립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의 이러한 바람은 에비슨의 안식년 기간 중 ‘세브란스’라는 석유회사 사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세브란스가 에비슨에게 1만 달러를 기부한 것이다. 그의 이름을 딴 세브란스 병원은 1904년 남대문 밖 북송아골에 세워졌고, 세브란스가(家)의 계속된 기부를 통해 병원은 계속 증축될 수 있었다.

제중원 의학교 설립하고, 연희전문학교 교장으로 섬기다

에비슨은 한국의 위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의사와 간호사의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여겨서 1899년 제중원 의학교를 개설하였다. 이 학교는 처음에 지원자들이 별로 없고 가르칠만한 적당한 한글 교재가 없어서 애를 먹었다. 에비슨은 김필순과 함께 해부학 서적을 천신만고 끝에 번역하였지만 그것은 사고로 소실되고 말았다. 하지만 더 많은 교수들이 충원되면서 학교는 점차로 발전해 갔다. 이 중에는 한국인 교수 박서양도 있었는데, 박서양은 에비슨 선교사의 치료로 장티푸스의 죽을 고비를 넘긴 후 백정과 천민에게 복음을 전했던 백정 박성춘의 아들이기도 했다. 한편 에비슨은 병원장을 그만 두면서 다른 선교사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오금선이 자신의 후임이 되도록 하였다. 이것은 선교의 목적이 한국 사람들 스스로 모든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다는 평소의 소신을 실천한 것이다.

또한 에비슨은 언더우드의 뒤를 이어서 연희전문학교의 교장으로 1916년부터 18년을 일하기도 하였다. 그가 이렇게 당시 유력하던 선교 기관 두 곳의 대표로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특유의 성실함과 겸손함, 균형 감각 덕분이었다. 33세 때 한국에 들어온 에비슨은 42년 동안의 훌륭한 선교사역을 마감하고 1935년 은퇴 후 귀국했으며, 1956년 플로리다 주에서 96세의 나이로 별세 하였다.

1893년 부산에서 태어난 예비슨의 아들 더글라스는 아버지가 졸업한 캐나다 토론토 의대를 졸업하고, 1920년 북장로교 의료선교사로 내한하였다. 그는 선천 선교부, 서울 선교부, 세브란스 의전 소아과 교수 및 병원장으로 봉직하다가 태평양전쟁 직전에 캐나다로 돌아갔다. 1952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별세하여 유언에 따라 양화진에 안장되었고, 그의 아내 캐서린도 1985년 87세로 별세한 후 양화진에 있는 남편 묘에 합장되었다.


예비슨은 세브란스병원과 의학교를 설립하고 성장시켜 근대의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1893년 한국에 들어온 예비슨은 처음에는 제중원의 책임을 맡아서 환자들을 치료하였다.

세브란스의 후원을 받아 세브란스병원을 설립하였고 제중원 내에 의학교를 설립하였다.

42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사로 일하다가 1935년 은퇴하였다.

양화진에는 예비슨의 아들 내외가 묻혀 있다.

	Turner, Arthur B.(터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 : 1862. 영국 - 별세 : 1910. 한국 - 한국활동기간 : 1896 ~ 1910 - 국적 : 영국 - 소속교단 : 성공회 - 묘비번호 : I-07

선교사 이야기

“성공회 주교로 YMCA 발전과 교회개혁에 기여”

YMCA 발전에 크게 기여

한국 성공회는 코르프에 의해서 1890년 시작되었다. 성공회 선교사들은 한국어와 문화를 익히면서 몇 해 동안 선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들 성공회 선교사들은 거의 옥스포드와 캠브리지 대학교 출신의 엘리트들이었다. 선교사들은 1896년 성탄절 전야에 비로소 몇 사람에게 성세를 베풀었고 점차 교회로서 형태를 갖추어갔다.

이 무렵 터너가 한국에 들어왔다. 그는 옥스포드대학을 졸업하고, 사제로 서품을 받은 지 8년 만에 한국에 도착하였다. 터너는 1904년 초대 코르프를 이어 제 2대 주교가 된 후 주로 인천과 강화도에 집중되어 있던 성공회의 선교 영역을 수원과 충북 진천까지 확대하였다. 터너는 YMCA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는데, 1907년에서 1910년 한일합방에 이르는 어려운 시기에 YMCA 회장을 맡으면서 이상재, 윤치호 등의 항일운동을 뒷받침하였다. 터너는 미국 백화점왕 워너메이커의 후원으로 YMCA의 새 건물을 신축하는 일도 추진하였으며, 상동교회 출신의 전덕기와 YMCA의 이상재, 이승만, 김규식 등을 규합하여서 기독교 연합 세력을 만드는 일에도 힘썼다.

직접 실천한 신앙 원리와 가르침

터너는 신자들에게 다음의 신앙 원리를 가르치고 직접 실천하였다.

첫째, 현실 문제를 도외시한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둘째, 성공회 신자들은 친일 단체인 일진회에 절대로 동참해서는 안 되고 불의와 싸우는 항일운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셋째, 기복적인 신앙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순수한 동기로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는 외국인 선교사가 교회를 직접 경영하면서 모든 경비를 전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므로 한국교인들에 의한 자치와 자립을 추구하였다. 이런 뜻에 따라 교인들 스스로의 힘으로 세워진 교회로는 강화 온수리교회와 진천교회 등이 있다. 강화 온수리교회 뜰 안에는 그의 덕을 기리는 공덕비가 세워져 있다.

터너, A.B. - 2대 성공회 조선교구장 주교, YMCA 회장, 한국 스포츠의 아버지

터너는 성공회 2대주교로 성공회의 교세확장과 YMCA 발전에 기여한 선교사이다.

터너는 주로 인천과 강화도에 집중되어 있던 성공회의 선교영역을 수원과 충북 진천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1907년부터 1910년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제합병되는 시기에 YMCA 확장을 맡으면서

이상재, 윤치호 등의 항일운동을 뒷받침 하였다.